

# 동양의 하드보일드 추리무협, 추리와 무협의 컨버전스

고 훈\*

1. 서론
2. 추리무협의 시작, 〈초류향〉
3. 한국의 추리무협 〈지옥의 영가〉, 〈구기화〉
4. 결론

## 국문초록

추리무협이란 추리와 무협이 결합한 형태의 서사물이다. 중국 작가 고 룡으로부터 시작한 장르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존 무협소설에 추리적 요소를 섞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국내 추리무협 작품으로는 〈지옥의 영가〉와 〈구기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룡의 〈초류향〉과 〈지옥의 영가〉, 〈구기화〉를 분석해 추리와 무협의 컨버전스 형태인 추리무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고 룡의 〈초류향〉은 뽀빠이, 셜록 홈즈와 같은 유사한 능력을 지녔고 강호의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추리적 요소를 보여주기에는 하지만 관찰력과 추리력을 바탕으로 범인을 밝히는 과정이 추리소설만큼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옥의 영가〉는 기억을 상실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추리적 서사를 지향했지만 설정의 불균형, 에스컬레이팅

---

\* 연세대학교 BK21+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연구교수

시스템 활용의 오류 등을 보이면서 추리무협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다만 과도한 폭력과 선정적인 장면의 도입, 팜프파탈적 캐릭터 등장 등의 측면에서 하드보일드 성격을 지녔다는 의의는 있다. <구기화>는 제시된 문제를 논리적 판단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추리적 요소를 드러내며, 무협소설의 본질인 '협'의 정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추리소설과 무협소설의 융합을 잘 보여준다. 다만 추리소설 기본 작법에서 위배되는 부분과 무리한 설정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추리무협은 무협소설 장르의 변용으로 새로운 시도로 정통 추리소설과는 거리가 있으며, 여러 요소를 살펴볼 때 추리소설의 하위 장르인 하드보일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추리와 무협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 간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에서 추리무협은 장르적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고, 몇몇 작품에서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주제어: 추리무협, 추리소설, 무협소설, 융합, 컨버전스, 고통, 초류향, 지옥의 영가, 구기화, 하드보일드)

## 1. 서론

추리무협이란 말 그대로 '추리'와 '무협'이 결합한 형태의 서사물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신파 무협 작가 고통이 개척한 장르로 알려져 있다. 고통은 기존의 무협소설에 '추리적' 요소를 섞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냈다. 한국에서의 추리소설은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국내 창작물도 많지 않은데, 더구나 추리에 무협이 결합한 '추리무협'은 연구성과도 없고, 대상 작품도 희귀하다. 본고에서 다룰 연구대상은 추리무협의 시작이라 할 수 있

는 고룡의 <초류향>과 국내 작품으로는 <지옥의 영가>와 <구기화>이다.<sup>1)</sup> 이 세 작품을 통해 추리무협의 장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리무협은 ‘추리’라는 장르적 특성을 공유하고, 당(唐), 송(宋), 명(明), 청(淸)등 중국 왕조를 배경으로 하거나 중국 문화권과 같은 배경을 활용한다는 점, 등장인물이 무공을 사용한다는 점, 사건이 발생하고 추리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안소설’<sup>2)</sup>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추리소설 하위 장르로 구분 가능한 공안소설은 중국에서 탄생한 가장 오래된 추리소설 유형이다.<sup>3)</sup> 추리무협은 공안소설과도 유사함을 지니고 있지만, 주인공의 신분이 공안이 아니라는 점, 초자연적 현상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범인 검거 후 재판과 형 집행까지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추리무협은 공안소설과 ‘추리’라는 특성을 공유하지만 개별 장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의 공안소설은 당나라 때의 적인걸, 청나라 때의 포청천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상물 제작 위주로 맥을 잇고 있으며, 국내 창작 작품으로 공안소설은 없는 상황이다.

추리무협은 ‘추리’와 ‘무협’이라는 장르 간 컨버전스 형태를 보여준다. 추리무협은 주인공을 유혹하는 팜프파탈 캐릭터 등장이나 사건 해결 과정

1) 국내 작품의 경우 두 작품 모두 ‘추리무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2) ‘공안’은 관청에서 조사를 요하는 사건이면서 민·형사에 관계되는 사건을 말한다. <수호전>, <홍루몽> 같은 작품에서 공안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법치 정신이 정착되지 않았던 고대에 법률 체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청렴한 관리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 당시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 결국 하늘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반영되어 공안소설에서 귀신이나 초자연적 힘이 등장하게 된다. <삼협오의>에서 협객이 등장해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서 공안과 협의가 결합하는 컨버전스 형태를 볼 수 있다. 공안소설은 간단한 추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만 사건 전개에서 단서나 추리적 긴장을 유발하는 서술이 부족하고 사건 해결을 묘사하는 기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3) 대중문학연구학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41쪽.

중에 주인공이 위협에 처한다는 점, 폭력성이 높다는 점 등의 특성이 있는데 이는 본격 추리소설이 아닌 하드보일드 유형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서양에서 정통 추리소설에 반(反)해서 영국은 ‘도서형’, 미국은 ‘하드보일드’가 등장한 것처럼<sup>4)</sup>, 한국과 중국에서도 정통 추리소설이나 정통 무협소설에 식상함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중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파 무협 3대가 중 고룡은 양우생과 김용에 비해 부족한 중국 문화 및 문학과 기타 제반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무협 장르에 추리적 기법을 활용해서 ‘추리무협’ 혹은 ‘무림공안’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추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2. 추리무협의 시작, 〈초류향〉<sup>5)</sup>

추리무협을 논함에 있어 중국의 무협소설 작가 고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룡<sup>6)</sup>은 중국 신파 무협 3대가 중 일인으로 기존의 무협소설에 추리소설 기법을 가미해 ‘추리무협’ 혹은 ‘공안무림’으로 불리는 영역을 완성했다. 그는 양우생이나 김용에 비해 무협소설에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리’라는 요소를 접목한

4) 대중문학연구학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92쪽.

5) 〈초류향〉은 1967년 연재 당시 『철혈전기』라는 제목이었으나 1977년에 『초류향전기』로 제목을 바꿔 출판한다. 무림의 유명한 도둑 초류향은 친구 호철화, 희빙인과 함께 강호를 떠돌며 겪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연구대상인 『소설 초류향』은 고룡의 『초류향전기』를 완역한 것으로 “숨막히는 사건의 연속과 상상을 초월하는 음모를 파헤치는 추리적 요소가 박진감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번역자는 소개하고 있다.

6) 고룡(古龍, 古龍, 1939~1985), 대만의 무협소설 작가로 본명은 웅요화이다. 김용, 양우생과 함께 신파무협소설의 거장으로 꼽힌다. 추리무협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절대쌍교』, 『다정검객무정검』, 〈초류향〉이 있다.

다. 이를 통해 추리와 무협의 컨버전스를 시도했고, 기존 무협소설과 차별점을 지닌 '추리무협'은 고훈을 중국 신파무협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다. 추리무협의 대표작으로는 <초류향><sup>7)</sup>이 있다. 주인공 초류향의 활약을 그린 작품으로 이후 한국 무협소설 작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sup>8)</sup>

“추리소설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피카레스크 식의 연작 형식을 즐겨 채택한다는 점[‘초류향전기(楚留香傳奇)’ 연작, ‘육소봉전기(陸小鳳傳奇)’ 연작, ‘칠종무기(七種武器)’ 연작이 그러하다] 등이 구룡 무협소설의 서사적 특징이다.”<sup>9)</sup>

“구룡의 전혀 새로운 무협소설은 곧 수많은 추종자들을 낳았다. 1975년 이후로는 구룡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영향으로 홍콩에서도 구룡 붐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구룡의 에피고넨들은 상투적이고 진부한 모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갈수록 천박한 양상으로 치달았다.”<sup>10)</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천박한 양상을 보였

---

7) 이해를 돕기 위해 <초류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호의 유명한 도사(盜師)인 초류향이 기거하는 배로 시체가 연달아 흘러오고, 이들의 죽음의 원인과 흉수를 밝히기 위해 초류향은 수사를 시작한다. 천일신수라는 독물에 의한 연쇄살인임을 알게 되고, 여기에 흑진주, 묘승(妙僧) 무화 등이 등장해 그들 간에 얽힌 악연의 관계가 밝혀진다. 여기까지가 작품 전반에 해당하는 서사이고, 이후 사막으로 배경을 옮겨 누란 왕국의 여왕이 된 신비의 여인 석관음과 초류향의 대결이 펼쳐진다. 석관음과의 대결 이후 또 다른 신비의 인물 화미조가 등장하게 되고, 초류향은 강호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사고를 해결하게 된다.

8) 추리무협을 논의하는 데 있어 고훈에 관한 언급은 필연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추리무협의 양상을 살피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훈과 그의 작품을 언급은 하되 그것에 관한 분석이나 작품 번역사를 살피는 것에는 주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9) 전형준,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1~52쪽.

10) 전형준,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2쪽.

다는 점은 3장에서 논의할 한국의 추리무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협소설에 '추리'라는 장르를 접목하는 방식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나 이후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장르인 '추리무협'이 독자적인 장르로서 자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초류향은 무림의 유명한 도사(盜師)인데, 그가 예고장을 보내고 물건을 훔치는 방식은 튀팽을 연상케 한다. 또 초류향은 튀팽처럼 변장 실력이 뛰어나다는 설정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세인들이 그대의 백옥미인(白玉美人)을 칭송하는데 그 교묘한 솜씨와 아름다움은 비길데 없어 항상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소. 오늘밤 자정 무렵 달빛을 밝고 취하러 갈 것이니, 그대는 넓고 넓은 아량으로 부디 이 몸이 헛된 걸음하지 않게 해주길 비오.”<sup>11)</sup>

“하지만 그는 이런 쪽지 한 장으로 얼마나 많은 진귀한 보물을 훔쳤는지 모르오. 그가 자시(子時)에 그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어떤 사람이라도 축시(丑時)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오.”<sup>12)</sup>

고룡의 〈초류향〉은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제작되었다. 영화는 1977년 홍콩 쇼브라더스에서 제작했고, 이후 약 14편이 더 제작되었다. 드라마는 홍콩에서 1979년 제작했고, 〈초류향〉 및 고룡의 다른 작품을 대만, 중국에서 계속 드라마,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 현재 무협 MMORPG 게임을 중국에서 〈초류향〉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이다. 게임 자체는 무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고룡의 〈초류향〉과는 무관하다. 즉, 〈초류향〉의 유명세를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류향〉의 대중적 인기가 높았음

11) 고룡 저, 장학우 역, 『소설 초류향』 1권, 도서출판 대륙, 1992, 11쪽.

12) 고룡 저, 장학우 역, 『소설 초류향』 1권, 도서출판 대륙, 1992, 13쪽.

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장황한 설명이 가득한 일반적 무협소설에 비해 전개가 빠르고, 자유분방한 주인공의 활약은 비교적 고지식하거나 정의감에 불타는 바른 생활 주인공에 익숙한 독자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거기에 대화 위주, 빠른 장면 전환 등으로 대본화하기 쉬워 영상물로 제작되었던 고훈 작품을 영상물로 접할 수 있었기에 독자들은 고훈의 작품을 선호했을 것이다. 무협소설에 추리라는 요소를 추가해 만들어낸 ‘추리무협’이라는 장르는 기존 추리소설 독자층과 무협소설 독자층 모두가 향유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독자층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을 <초류향>의 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초류향>에서 찾을 수 있는 추리무협적 특성이다.

“이 검에 찔린 상처는 한 치에 불과하군요. 천하의 무림 중에 오직 ‘해남(海南)과 ‘노산(嶗山)’ 양대검파(兩大劍派)의 제자들만이 이런 작은 검을 사용하지요.”<sup>13)</sup>

초류향은 설록 흠즈처럼 날카로운 관찰력을 통해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범인의 윤곽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찰력은 설록 흠즈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그가 길 건너편에 있을 때 손등에 새겨져 있던 크고 푸르스름한 닳 문신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바닷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고 게다가 그에게서는 군대식 몸가짐이 느껴졌어요. 또 단정한 구레나룻도 갖고 있었지요. 그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건 너무나 명료합니다. 또 그에게서는 약간 거만한 구석이 느껴졌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도 났어요. 그건 그가 하사관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sup>14)</sup>

13) 고훈 저, 장학우 역, 『소설 초류향』 1권, 도서출판 대륙, 1992, 29쪽.

“영국의 전당포는 시계를 전당 잡을 때, 시계 뚜껑 안에 전당포 번호를 작게 새겨 놓는다네. 확대경으로 보니 그런 번호가 네 개나 있더군. 그래서 자네 형이 가끔 돈에 쪼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그리고 태엽을 잘못 감아서 생긴 상처가 많은 걸 보고 시계 주인이 술에 취해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감았다는 것 짐작했네.”<sup>15)</sup>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은 평범하기 이룰데 없지만 두 겹의 가죽신은 그가 본래 유목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그의 피부는 아주 매끄러운데 얼굴은 거친 것으로 보아 그가 오랫동안 사막의 풍상을 겪었음을 알 수 있고, 허리에는 칼집을 매는 고리가 있지만 칼과 칼집이 없는 것이 그가 사용하던 칼은 보도(寶刀)라서 누군가가 빼앗아 가 버린 것이겠지.”<sup>16)</sup>

남겨진 증거를 찾고 이를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명탐정의 능력이다. 작품 속 유명 탐정들은 대부분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독자는 이러한 활약을 보며 대리만족과 사건 해결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추리 소설이 지닌 장르적 특성이자 매력이라 하겠다. 추리무협도 추리소설과 마찬가지로 ‘추리’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에 관찰력을 통한 논리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초류향>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류향은 해박한 강호의 지식을 바탕으로 범인의 수법과 사용한 무기를 알아낸다. 실상 이러한 장면은 무협소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설정이다. 무협소설 속에서는 특정 문파나 세가만의 고유한 무공 수법이 있다. 그리고 강호의 인물들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비무를 벌인 장소에 남겨진 흔적이나 몸에 남은 상처 자국을 통해

14) 아서 코난 도일, 『주홍색연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 19쪽.

15) 아서 코난 도일, 『네 개의 서명』,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 7쪽.

16) 고룡 저, 장학우 역, 『소설 초류향』 1권, 도서출판 대륙, 1992, 36쪽.



상대방의 정체나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상황을 재현하는 장면은 무협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장단점을 논하며 상성(常性)에 관한 논점(論劍)을 하는 것이 무협소설의 장르적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추리소설과 무협소설은 장르적 특성의 교집합을 지니고 있고, 고훈은 이런 점을 통해 추리와 무협의 컨버전스를 더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인공 초류향이 휘팽이나 설록 흠즈와 유사한 능력을 지녔고, 강호에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추리적 요소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와 범인을 밝히는 과정이 추리소설만큼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 3. 한국의 추리무협 <지옥의 영가>, <구기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추리무협 작품은 극히 드물다. 여기에서 ‘추리무협’이란 용어 자체를 장르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무협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는 추리적인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남겨진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혹은 사라진 인물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무협소설에서 애용하는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추리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연구대상을 선정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한계가 있다.<sup>17)</sup> 그런 관계로 여기에서는 부제로 ‘추리무협’을 표방하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국의 추리무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7) 용대운 『군림천하』, 진산 『대사형』, 김문형 『실명무사』, 심우 『사라진 그림자』 등 추리적 요소를 지닌 작품은 너무 많다. 추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한국 무협소설 속 추리적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 3-1. 동양적 하드보일드 <지옥의 영가>

<지옥의 영가> 주인공 사역생 장연은 측근의 배신으로 구사일생하게 되나 기억을 잃게 된다. 누가 왜 배신을 했는가와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의문을 추리하는 과정, 강호의 패권을 둘러싼 조직간 암투 및 대결, 암흑마왕과 이에 맞서는 천지회, 그리고 정도무림연맹 십정산의 첩보 조직 제오열, 암흑마왕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단심령주와 사역생의 관계가 얽혀 <지옥의 영가> 전체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두 사람이 있다. (중략) 첫 번째 공포의 주인공, 암흑마왕(暗黒魔王)! 그는 세 가지 특별한 재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마지막 세 번째는 변장술(變裝術)이다.”<sup>18)</sup>

“귀수도왕. 그는 팔십 년 전에 활동했던 기인(奇人)으로, 세 종류의 독보적인 기예(技藝)를 활용해서 천하를 제 집 안방처럼 중횡무진 휘젓고 다녔다. 그를 신화적인 기인으로 만든 세 가지 기예 중의 첫 번째는 투술(偷術: 도둑질)이었고, 둘째는 사기술(詐欺術)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변장술(變裝術)이었다.”<sup>19)</sup>

암흑마왕, 귀수도왕 모두 변장술에 능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특히 귀수도왕은 도둑이라는 점에서 튀팽과 유사한 설정임을 알 수 있다. 고통의 ‘초류향’ 또한 강호의 유명한 도둑이며, 변장술에 능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지옥의 영가>는 <초류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그 설정을 그대로 활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옥의 영가>는 여러 한계점

18) 아도인, <지옥의 영가> 1권, 서울창작, 2000, 12~13쪽.

19) 아도인, <지옥의 영가> 1권, 서울창작, 2000, 76~77쪽.

을 지니고 있다. 작품 초반에 나열한 설정이나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서둘러 끝냄으로써 작품 전체의 완성도를 낮추고 있다.

장연(사역생)은 귀수도왕이 익힌 〈무영비기총요〉 비급과 실패를 얻는다. 실패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귀수도왕이 평생 모아놓은 재물이 숨겨진 곳을 가리키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재물이 숨겨진 곳에 관한 이야기나 재물을 활용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영화 용어로 ‘맥거핀’에 해당하는 식의 서술 방식은 고통에서부터 이어지는 악습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잘 계승되고 있다.

“광의, 지금 네가 말한 것이 설마 제오열(第五列)의 환인(幻人)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지? (중략) 환인,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면에 나서지 않고 그저 정보를 캐내어 전달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끝낸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일이지만, 행여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면 결코 싸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조직의 비밀을 지킨다.”<sup>20)</sup>

제오열<sup>21)</sup>의 환인이라는 설정은 추리무협이라는 장르와 잘 어울린다. 스파이, 첩보, 조직 등의 소재는 추리소설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첩보 소설에 등장할 수 있는 설정이기에 추리라는 장르적 요소를 잘 활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만 〈지옥의 영가〉에서 ‘제오열’을 활용하는 방식은 단순히 등장에만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학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전형적인 방식을 활용한다. 에스컬레이팅 시스템도 이러한 전략 하나인데, 주인공을 능가하는 무력의 적대자가 거듭 등장함으로써 독자의 호승심 및 호기심을 자

20) 아도인, 〈지옥의 영가〉 1권, 서울창작, 2000, 118~119쪽.

21) 스파이, 공작원, 내부의 적이라는 의미로 헤밍웨이가 작품으로 써서 유명해진. 김성종도 동명의 작품을 썼다.

극한다. 이 방식은 재미를 주긴 하지만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재미가 반감되고, 점점 강력해지는 능력치의 균형 조절이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지옥의 영가〉는 균형 조절에서 실패했다. 연이어 등장하는 악당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실전된 전설의 무공을 사용한다. 이게 1~2번 정도면 독자는 호기심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전설의 무공을 펼치는 은거 기인의 등장은 무협소설 속 전형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옥의 영가〉에서는 은거 기인 등장 후 또 다른 은거 기인이 등장하는 방식이 거듭되면서 독자는 식상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또,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무공은 절대적인 힘을 지녔다고 설명하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무공도 당해낼 자가 없다는 설명은 소위 ‘밸런스 붕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한다.

“지옥십자훈. 그것은 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검초였다.”<sup>22)</sup>

“각기 백팔검초를 교환하고 삼백예순다섯변의 신법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어찌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이라 말할 수 있으랴.”<sup>23)</sup>

“상대가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천리회성술이었다.” “천리회성술. 전음술 중에서 해광심어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sup>24)</sup>

“구유패천혈독공. 일반적인 독공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독강기가 와선형으로 광풍처럼 휘몰아쳐 나가는데, 그 위력이 저주스러운 정도로 패도적이어서 공력이 약한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그 즉시 몸이 녹아버린다. 만독불침의 신체를 이룬 절정의 고수라도 이 독공이 지닌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sup>25)</sup>

---

22) 아도인, 〈지옥의 영가〉 3권, 서울창작, 2000, 57쪽.

23) 아도인, 〈지옥의 영가〉 3권, 서울창작, 2000, 61쪽.

24) 아도인, 〈지옥의 영가〉 3권, 서울창작, 2000, 68쪽.

25) 아도인, 〈지옥의 영가〉 3권, 서울창작, 2000, 71쪽.

위의 인용문은 〈지옥의 영가〉 3권의 내용인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검초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움직임 그리고 전설의 천리회성술, 만독 불침의 고수도 녹이는 독공이 5~6쪽에 걸쳐 연달아 나오는 설정의 불균형이 드러난다.

“소취, 그 아이는 단정지어 말해 독술(毒術)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아이의 새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솜씨는 고급제일이라 말해도 결코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천하를 몽땅 독으로 뒤덮이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sup>26)</sup>

이런 독술의 여왕이라는 목소취는 회회삼살의 습격을 받자 독을 사용하지 않고 미혼향을 사용한다. 그리고 독술의 여왕이 사용하는 미혼향은 회회삼살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손쉽게 잡혀 고문을 당하고 모든 정보를 토설한다. 한으로 뭉쳐 자신을 짝사랑하는 인물도 거부하며 복수를 꿈꾸며 독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결심을 한 인물치고는 너무 쉽게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을 보여준다.

결국 사역생 장연은 사역생이자 단심령주이며 귀수도왕의 진전을 이어 받은 인물인데,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축약되어 있으며, 주변 인물의 대화로 간단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장연의 출생에 얽힌 비밀도 친구가 남긴 편지로 설명해 버린다. 주인공의 기억 상실로 인한 정보의 차단과 신분을 하나씩 밝혀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긴장감 고조 및 흥미 유발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허무할 만큼 간단하게 처리되면서 긴장감 해소, 지적 유희에서 오는 쾌감이 감소한다. 이는 작품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크게 작용한다. 즉 〈지

---

26) 아도인, 〈지옥의 영가〉 2권, 서울창작, 2000, 116쪽.

옥의 영가)는 전통적인 추리 서사에서 볼 수 있는 치밀한 구성과 냉철한 판단, 날카로운 관찰력, 단서를 통한 정확한 사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기억 상실, 비밀조직, 변장을 통한 침투 등의 요소만 활용해 기대감을 높이 지만 그 기대감에 충족하는 납득할만한 설명은 생략된 용두사미식 서술을 보여줄 뿐이다.

〈지옥의 영가〉에는 다양한 단체가 등장한다. 물론 무협소설에서 9파 1방을 비롯한 5대 세가, 마교, 하오문, 녹림 18채와 같은 많은 단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암묵적으로 정립된 하나의 체계를 지니고 있기에 무협소설을 향유하는 독자들은 추가 설명 없이도 세력이나 구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옥의 영가〉 속 단체들은 이러한 체계를 벗어나 작가가 단독으로 설정한 여러 단체를 나열하고, 주인공은 이 여러 단체에 각기 다른 신분으로 얽혀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을 주변 인물의 설명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설정은 너무나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어 전체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도무림연맹 십정산 휘하 비밀조직 단심혈이고, 단심혈은 십정산 휘하이지만 조직 구성은 천지회에서 한다고 설명한다. 이 단심혈을 이끄는 인물이 단심령주이며 주인공 사역생 장면이 단심령주다. 천지회는 구성 인원 각각이 한 방면에서 최고의 재주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마교나 사파인을 견제하는 비밀세력이다. 단심혈은 이러한 천지회를 사파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는 비밀조직으로 등장한다. 천지회는 암흑마왕을 견제하기 위해 단심령주 장연을 기억을 지우고 마공을 익히게 해서 사역생 장면으로 개조한다. 그리고 그 사역생은 그들 돕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상처를 입고 사라진다. 천지회가 사역생을 찾아 나서지만, 반년이 넘도록 찾을 수 없었고, 사역생은 기억을 잃은 채 기억의 편린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찾아

나서는 동안에도 천지회 및 암흑마왕 측에서도 사역생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 거대 조직이 조직의 핵심 인물의 소재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지 못한다는 점, 여러 단체가 등장하지만 작품 서사 진행에 있어 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설정상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옥의 영가>에 등장하는 불필요한 성애 장면이나 강간 장면은 색정적 요소를 추가했던 대본소 무협소설의 양금으로 자리해 불쾌함을 줄 뿐이다. 한편, 가장 최고조에 이르러야 할 적대자 암흑마왕 남궁현극과 장연의 마지막 대결 장면은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다. 독령마인에 의해 중독된 장연은 기연을 통해 얻었던 인면지주와 음양쌍두천관사왕의 내단이 독령마인의 독과 융합되면서 음양이기의 조화를 이루어 중독에서 벗어나고 엄청난 내공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단 일격에 남궁현극을 물리친다. 최종 악당과의 대결은 작품의 백미여야 하는데, 김용이 언급했던 ‘무초가 유초를 이긴다’라는 논리처럼 일수(一手)에 끝나는 대결은 작품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허무하다. 작품 말미에 장연과 지옥팔영, 십정산을 물리치기 위해 잔존 세력인 살인교작 태숙공과 강비연의 음모를 보여준다. 이는 요즘 영화에서 자주 활용하는 ‘쿠키 영상’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후속 작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옥의 영가>는 천애 절벽을 오르다 기연을 얻는 장면, 기억 상실 상태의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 다양한 초식과 무공명칭을 외치며 대결하는 장면, 음양고를 이용해 남성을 조종하려는 팜프파탈적 여성 캐릭터 등 무협소설의 전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추리’와 ‘무협’의 결합에서 무공 대결 장면 할애에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액션과 폭력을 첨가해 대중적 흥미를 자극한 ‘하드보일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험에 빠지는 주인공, 팜프파탈적인 여성 캐릭터의 등장, 폭력성이

높다는 점 등은 추리소설의 하위장르인 ‘하드보일드’ 유형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한 사건 해결과 선정적인 장면과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무협소설로서의 〈지옥의 영가〉와 하드보일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지옥의 영가〉는 관찰, 증거 수집, 논리적 추리를 통한 사건 해결과 부족, 추리적 서사의 결핍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드보일드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양적 하드보일드라 분류할 수 있겠다.

### 3-2. 추리와 무협의 컨버전스 〈구기화〉

〈구기화〉는 해밀 작가의 추리무협 작품으로 표지에 ‘해밀 추리무협소설’이라는 부제가 있다. 또, “의문의 석실 안에서 깨어난 아홉 명의 사람. 이제 그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려 한다. 각자의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의문의 행로. 그리고 그 끝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라는 소개 글<sup>27)</sup>을 통해 장르적 특성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무림 고수 칠천무인으로 불리는 장왕 고원월과 귀성 독고음. 신의(神醫) 장문영, 정체를 알 수 없는 중년 여인 정월명, 면사로 얼굴을 가린 소저 지부용, 남궁가의 둘째 창룡 남궁대수, 정무단 단주의 넷째 제자이면서 조카인 진사백, 서생 위해원, 이지를 상실한 거한 대소 9명은 석실에서 순차적으로 정신을 차린다. 그들은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 석실에 감금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힘을 모아 탈출을 시도한다. 서사가 진행되면서 9명 각자의 정체를 추측하게 하는 단서를 조금씩 제공하고 석실에서 다른 석실로 옮겨가는 단계를 설정해 두었다. 석실은 비밀 통로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27) 〈구기화〉는 2007년 청어람에서 출판했고, 2012년 네이버 시리즈에서 웹소설로 서비스되었다. 여기에서 소개 글은 네이버 웹소설에서 〈구기화〉를 소개한 것이다.



각 단계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가져온 ‘지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옥을 관장하는 ‘대왕’이 기다리고 있다. 일행은 이 단계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자 지닌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각 단계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퍼즐을 풀어야 하며, 각 단계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때 논리적 유추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무공으로 직접 해결하는 구성을 통해 ‘추리’와 ‘무협’을 적절하게 융합하고 있다.

〈구기화〉는 신의 장문영의 희생을 통해 의(義)와 협(俠)의 모습을 보여준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장왕 고원월은 남궁대수에게 “약속하게. 지금처럼 의와 협을 기억하겠다고. 약자를 돕고 살아가겠다고... 장신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겠다고”<sup>28)</sup>라며 협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강요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구기화〉가 지닌 무협소설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초고수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옆에 있던 위해원에게 자신의 무공을 전수하는 무협소설의 전형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한편, 전체 서사를 이끄는 인물인 서생 위해원은 무공은 전혀 모르는 백면서생이지만 뛰어난 관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작품에서 탐정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공을 모르기에 직접 행동을 하지 않는 인락의자형 인물이다. 9명 모두 낯선 곳에 왜 감금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임에도 정작 위해원은 무공도 모르는 약한 존재임에도 오히려 위급한 상황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해원이라는 인물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심리적 변화 모습을 예리하

28) 해밀, 〈구기화〉 3권, 청어람, 2007, 120쪽.

게 관찰하고 추궁하는 장면은 추리소설에서 용의자를 심문하는 장면과 유사하다. 일행 중 최고수인 장왕 고원월과 귀성 독고음의 날 선 대답은 작품의 중심 서사와는 별개인 서브 서사로 작동해 또 다른 긴장감을 유발한다. 일행 모두 의심을 살만한 언행을 통해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 동조자나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독자에게 심어주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석실을 만들고, 9명을 납치해 가둔 비밀스러운 조직이 등장하는데, 이 조직에는 문(文)을 담당하는 우도대왕 ‘영해’와 무(武)를 담당하는 좌도대왕 ‘영산’ 두 형제가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문’을 담당하는 ‘추리’와 ‘무’를 담당하는 ‘무협’의 장르적 융합을 인물 설정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작가는 이러한 장르적 융합의 특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단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배는 명확하다. 무공을 모르는 서생 위해원이 두뇌를 활용해 해결책을 제시하면 무림 고수들이 무공을 활용해 해결하고 그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 마치 게임에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인데, 문과 무의 적절한 배분을 제시해 양 장르의 재미 요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

〈구기화〉는 추리와 무협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서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역시 몇몇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추리소설적 측면에서의 한계는 명확하다.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인 위해원이 모든 사건을 안배한 인물로 밝혀진다. 이는 S.S.밴다인이 말한 ‘추리소설 작법 20원칙’ 중 “탐정 자신, 또는 수사 당국 직원 중 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결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중략)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다.”라고 한 것에 위배 된다. 모든 추리를 위해원이 주도해서 풀고는 정작 자신이 범인임을 위해원의 독백으로 풀이되면서 수수께끼와도 같은 문제가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지적 유희의 쾌감을 기다리는 독자에게 허망함을 전달하는

실수를 범한다. 또한 위해원이 진시황의 후손을 수호하며 훗날을 기약하려는 조직의 수장으로 밝혀지면서 ‘비밀결사나 범죄 조직을 등장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조항도 위배한다.

〈구기화〉에서도 〈지옥의 영가〉와 같은 설정상 오류가 발견된다. ‘형상 기억합금’, 일반 자석보다 월등히 강력한 힘을 지닌 자석의 등장 등은 시대착오적 설정으로 작품 몰입에 방해가 된다. 차라리 무협적 요소를 강화해 영물(靈物)이나 전설적인 명장(名匠)이 설치한 기관진식이라는 식으로 처리했다라면 무협의 생리에 익숙한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나 현대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상황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설정의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더구나 이러한 설명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터라 이러한 부분은 아쉬움을 더한다.

한국 무협소설 작가 중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작품에 등장시키고, 은연 중에 이것이 증원보다 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꽤 많다. 해동에서 온 초고수, 장백산 일대를 관장하는 신비의 문파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구기화〉에서는 이황의 〈도산십이곡〉, 김시습의 시(詩), 『삼국유사』와 만파식적(萬波息笛), 최치원의 후손, 각저(씨름)와 택견, 도포, 서산대사 휴정의 장편 가사 〈회심곡〉을 통한 불교에서의 지옥 설명,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본풀이’ 등을 수시로 등장시키는데, 서사 진행에 있어 개연성 없이 자주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는 무협이라는 전형적인 장르의 특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며, 지나친 국수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지옥의 영가〉는 ‘주인공의 기억상실’이라는 점에서는 서효원의 〈대자

29) “바람은 기압 차에 의해 만들어 진다.” - 해밀, 〈구기화〉 3권, 청어람, 2007, 37쪽.

객교〉모티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모리스 르블랑의 ‘뤼팽’에서 시작되고 고룡의 ‘초류향’으로 이어지는 ‘변장에 능한 도둑’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추리무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색정적 장면 활용이라는 대본소 무협의 잔재와 설정의 불균형 등 한계를 보여준다. 다만 위기에 처하는 주인공과 주인공을 유혹하는 팜프파탈적 인물 등장, 폭력이 난무하는 하드보일드적 요소를 지녔다는 ‘추리무협적’ 양상을 보여주는 한다.

〈구기화〉는 추리와 무협의 적절한 융합과 문으로 대변되는 추리, 무로 대변되는 무협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추리적 장르에 비교적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시 추리소설 작법을 위배하는 설정과 지나친 국수주의 발현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추리무협은 무협 장르의 변용으로 새로운 시도였다. 고룡은 무협소설에 추리적 요소를 가미해 자신만의 장르로 정착시켰다. 그리고 고룡의 시도는 한국의 추리무협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부정하지 못한다. 한국의 추리무협은 장르적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몇몇 작품으로 흔적을 보여줄 뿐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의 추리무협은 정통 추리 장르보다는 하드보일드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폭력적 장면, 색정적 장면, 팜프파탈 캐릭터 등장 등의 요소는 하드보일드에 가깝지만 레이먼드 챌들러의 『빅슬립』을 통해 고정된 냉소적이고 비정한 인물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 초류향의 경우 유쾌한 인물이고, 장연은 기억을 잃어 혼란스러운 인물이며, 위해원은 사이코패스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하드보일드 유형 특유의 캐릭터는 보기 힘들다. 한국에서의 추리무협은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무협 장르 안에서 특별하고 일회적 변용 정도로 시도되었다. 실제 추리무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도 드물고, 추리무협으로 구분하고 있는 작품도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그 지점은 명확하다.<sup>30)</sup>

## 4.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추리무협은 ‘추리’ + ‘무협’의 컨버전스로 장르 변용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2. 추리무협은 무협물의 식상함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중 서사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통 추리소설 속 안락의자형 인물에서 벗어나 하드보일드 유형의 인물로 변주하는 차별성이 추리무협의 특성이다. 다만 하드보일드 특유의 냉소적이고 비정한 인물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서사적 특성은 이식했으나 캐릭터의 특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추리무협의 하드보일드적 변주의 한계가 아쉽다.
3. 중국의 경우 추리무협의 대표적 사례는 고룡의 〈초류향〉이다. 한국의 경우 추리무협을 표방하는 작품은 많지 않으며,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지옥의 영가〉, 〈구기화〉 정도가 ‘추리무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작품이다.

‘추리무협’은 주인공에게 닥쳐오는 위협과 유혹, 무공을 사용해 대결을 펼치는 액션 장면, 선정적인 장면 삽입, 팜프파탈 캐릭터의 등장 등을 볼 때 하드보일드에 해당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살펴보면 ‘추리무협’은 추리와 무협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 간 융합을 통한 변화 시도라는 즉, ‘문(추리)’과 ‘무(무협)’의 장르적 융합을 통한 변용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추리무협은 동양적 하드보일드로서 장르적 특수성을 보여주지만, 한국에서의 추리무협은 장르적 변화를 시도했다는 의미만 존

---

30) 작가의 분명한 의도로 ‘추리무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출판사의 마케팅적 의도인지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에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재할 뿐이다. 대상 작품 분석 결과 설정의 불균형, 추리 과정의 부재, 추리 소설 기본 작법 위배나 지나친 국수주의 등의 한계를 보이며, 대중적, 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 참고문헌

- 고룡 저, 장학우 역, 『소설 초류향』, 도서출판 대륙, 1992.
- 대중문학연구학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 아도인, 『지옥의 영가』, 서울창작, 2000.
- 아서 코난 도일, 『네 개의 서명』, (주)북큐브네트웍스, 2011.
- 아서 코난 도일, 『주홍색 연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2.
- 전형준,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해밀, <구기화>, 청어람, 2007.

## Abstract

### The East's Hard-boiled Mystery muhyeop, Convergence of reasoning and muhyeop

Ko Hoon(Yonsei University)

Mystery muhyeop is an epic in the form of a combination of reasoning and muhyeop. It is known for its genre that began with Chinese writer Gu long. He built his own territory by mixing reasoning elements with existing muhyeop novels. Domestic Mystery muhyeop works include 『Hell's Yeongga』 and 『Gugihwa』.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Mystery muhyeop, a form of convergence of reasoning and muhyeop, by analyzing the Gu long's 『choryuhyang』, 『Hell's Yeongga』, and 『Gugihwa』.

Although Gu long's Choryuhyang has similar abilities such as Lupin and Sherlock Holmes and shows reasoning elements in solving Gangho's case,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process of identifying criminals based on observation and reasoning power is not as prominent as mystery novels. 『Hell's Yeongga』 aimed for a mystery narrative in which the protagonist who lost his memory sought his identity, but it has limitations as a Mystery muhyeop as it shows imbalance in setting and errors in using the escalating system.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it has a hard-boiled character in terms of excessive violence, the introduction of sensational scenes, and the appearance of femme fatale characters. 『Gugihwa』 reveals the reasoning element in that it solves the presented problem with logical judgment, and shows the convergence of mystery and muhyeop novels in that it emphasizes the spirit of "Hyeob," the essence of muhyeop novels. However, it is a work that is regrettable due to the part that violates the basic composition of mystery novels and excessive setting.

Mystery muhyeop is a new attempt to transform the genre of muhyeop novels, and it is far from authentic mystery novels, and when looking at



various elements, it can be said that it corresponds to hard-boiled, a subgenre of mystery novel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converge between the most popular genres of reasoning and muhyeop. In Korea, the Mystery muhyeop did not achieve genre development, and there is a regret that it only showed its traces in several works.

**(Keywords: Mystery muhyeop, mystery novels, muhyeop novels, convergence, Go long, choryuhyang, Hell's Yeongga, Gugihwa, hard-boiled)**

논문투고일 2023년 1월 6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6일